석독구결의 속격 '-ㆆ'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윤희**

要約

석독구결에서 주로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는 '-ㆆ'이 속격조사의 표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또 이 구결자가 표시하는 음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속격의 '-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음절말 ㅅ이 'ㅅ→ʔ'의 불파음화를 경험한 결과음과 동명사 어미 '-ㅭ'의 말음이 서로 같기 때문에 동명사 어미 '-ㅅ' 표기가 나타났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그 결과 속격 '-ㅅ'이 불파음화한 'ʔ'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속격 '-ㆆ'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석독구결의 속격 '-ㆆ'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무리 없이 해결된다.

*핵심어: 석독구결, 중세국어, 속격, 속격조사, 동명사 어미, 불파음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1. 머리말

석독구결 자료 ≪華嚴經≫이 발견되어 검토되면서부터 한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시킨 구결자 가운데 하나가 속격의 용법으로 사용된 'ᄐᆞ'이다. 그 전까지 알려진 이두, 향찰 자료는 물론 그때까지 알려진 또 다른 석독구결 자료 ≪舊譯仁王經≫에서도 이러한 용법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華嚴經≫ 이후 발견된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華嚴經疏≫ 등의 석독구결 자료에서 모두 이러한 용법의 'ᄐᆞ'이 발견되었다. 그동안에는 지명 표기에 사용된 尸를 제외하면 이 차자는 주로 국어의 동명사 어미 '-ㅁ'을 표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터에, '菩薩ᄐᆞ 功德(보살의 공덕) 〈화엄 14: 14〉, 如來ᄐᆞ 諸 弟子衆ㅣ(如來의 모든 제자들이) 〈유가 20: 9-10〉' 등과 같이 속격임에 틀림없는 상황에서 'ᄐᆞ'이 사용된 현상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석독구결의 속격 '-ᄐᆞ'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장희(1995), 김유범(1996), 남풍현(1996ㄱ, ㄴ) 등과 같이 석독구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초기부터 이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에서 석독구결의 속격 '-ᄐᆞ'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고대국어에도 중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속격조사 '-ㅅ'이 존재했다고 보아 '-ᄐᆞ'이 '-ㅅ'을 표기한다고 보는 것이고(이장희 1995; 김유범 1996), 다른 한 가지는 '-ᄐᆞ'이 동명사 어미 '-ㄹ/ㅁ/ᄆᆞᆷ'(이하 '-ㅁ')을 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ᄐᆞ'이 고대국어에만 존재했던 속격조사 '-ㅁ'을 표시한다고 보는 것이다(남풍현 1996ㄱ). 전자는 'ᄐᆞ'이라는 구결자가 '-ㅁ'과 '-ㅅ' 두 가지를 표기한다는 결론이 되어 차자표기의 일반적인 경향인 '一字一音'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이승재 2000: 120), 후자는 고대국어에 속격조사임에 분명한 '-ᄀᆞ, -ᄂᆞ'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속격조사로 '-ㅁ'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또 그렇게 볼 때 이 속

격조사는 석독구결 자료에만 존재하는 문법사의 섬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자세한 문제점은 2장에서 후술됨)

이렇듯 'ㆆ'에 대한 그동안의 해명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점은 그대로 둔 채 두 가지 중 한 견해를 택하여 'ㆆ'을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석독구결에 대한 그동안의 이해를 집대성한 황선엽 외(2009)에서 속격의 '-ㆆ'을 포함해 이 구결자의 다양한 용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ㆆ'의 다양한 용법을 제시해 주고 있을 뿐, '-ㆆ'이 속격의 '-ㅅ'을 표기한 것인지, 속격의 '-ㅱ'을 표기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석독구결의 속격 '-ㆆ'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고대국어의 동명사 어미 '-ㅱ'[1]을 표기하던 '-ㆆ'이 속격조사의 표기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국어의 동명사 어미 '-ㅱ'을 표기하던 '-ㆆ'이 속격 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로 구결자 'ㆆ'이 이중음가를 표기했을 가능성과 고대국어의 속격조사 '-ㅱ'이 존재했을 가능성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밖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고대국어의 동명사 어미와 속격조사의 유사성으로 인한 속격 '-ㆆ'의 출현 가능성이 바로 그것으로서, 바로 이 제3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1) 이 글에서 동명사 어미 '-ㆆ'을 '-ㅱ'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2. 석독구결의 속격 '-ㅣ'에 대한 기존 견해 검토

고대국어를 반영하는 석독구결 자료는 물론 이두나 향찰 자료 등에서 속격조사가 '-叱, -ㄴ'(-ㅅ)과 '-矣, -之, -衣, -ㅢ'(-의)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2]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舊譯仁王經≫을 제외한 모든 석독구결 자료에서 속격의 '-ㅣ'이 발견된다. 다음이 바로 그 예이다.

(1) 가. 是ㅢ乙 名下 [菩薩摩訶薩ㅣ 八 第七 念藏]ㅅ ノ干ナ ㅣ
<화소 23: 17-18>
是 如支ソ丁 十種乙 [菩薩摩訶薩ㅣ 菩提心因]ヒノ干ナ丁ㅢ ㅣ
<금광 02: 20>
나. [菩薩ㅣ 法]乙 實 如 知 <화소 18: 02-04>
善男子ㅋ [菩薩ㅣ 四地]ㅋ十丁 是 相ㅢ 前現ノ丁ム
<금광 06: 04-05>
나'. [菩薩ヒ 觀]刀 亦ソ丁 然ヒソナ ㅣ <구인 15: 09-10>
다. 若 [如來ㅣ 體]ㅢ 常住ソ ㅁ ㅁ丁 入乙 見白ヒㅣ入丁
<화엄11: 15>
[如來ㅣ 諸 弟子衆]ㅋ 有ㅐ白ノ丁 所七 聖法乙 證得ソナ ㅇヒ ㅣ
<유가 03: 20-22>
(2) 가. 於戒ㅅ 及七 學ㅅ ノ今ㅋ十 常 順行ソヒㅣ入乙 [一切 如來ㅣ
俤美ソ ㅁ ㅁㅣ 所]ㅢヒ干分 <화엄 10: 13>
나. [諸 佛 如來ㅣ 說白ノ丁 甚深 法]乙 心ㅋ十 常ㅢ 樂ノ 聞白
ノㅣム <금광 03: 25-04: 01>
다. 此ㅢ 菩薩丁 過去七 [諸丁 佛ㄴㅢ 菩薩ㅣ 有ㅐ ㅁ ㅁ丁
所]七 功德乙 聞ナ分 <화소 13: 01-02>

---

2) 이에 대한 용례나 기능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건식(1996), 박진호(1998), 이승재(2000) 등 많은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라. [三世ᄑ 等ᄀᆞ ㅅ ㄱ ㅅ]乙 知ᄇᆞᆫ <화엄 07: 23>

(1)에서 보듯이 속격의 '-ᄑ'은 주로 선행명사가 '菩薩摩訶薩, 菩薩, 如來'일 때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3] (1가)는 "菩薩摩訶薩의 여덟째 念藏, 菩薩摩訶薩의 菩提心因", (1나)는 "菩薩의 法, 菩薩의 四地", (1다)는 "如來의 體몸, 如來의 모든 제자들"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성이다. (1가, 나)만을 볼 때에는 이때의 'ᄑ'을 말음첨기자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1다)나 (2라)와 같은 예들은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든다.[4] 더욱이 (1나)의 구성은 일반적인 속격표지 '-ㄴ'을 가진 (1나)의 구성('菩薩의 觀')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는 이른바 주어적 속격의 예로서 (2가)는 "一切 如來가 倆美하신 바", (2나)는 "모든 부처 여래가 말씀하신 甚深法", (2다)는 "부처와 보살이 두신(지니신) 바", (2라)는 "三世가 같은 것"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성이다. 이렇듯 (1), (2)에서 보이는 '-ᄑ'은 속격을 표시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ᄑ'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장희(1995)이다. 당시에는 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華嚴經≫만이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타난 'ᄑ'을 대상으로 검토한 뒤, 이 구결자가 어미로는 '-ㅿ'을 표기하지만 체언 뒤에서는 '-ㅅ'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른 차자 표기 자료에서 '시/ᄉᆞ/스' 정도의 음을 표기한

3) 이 밖에도 속격의 '-ᄑ'은 몇몇 명사구 뒤에서도 나타난다. 자세한 용례는 4장에서 제시한다.

4) 남풍현(1996ㄱ: 340)에서는 '善男子ᄀᆞ (又) 五法乙 (依) 菩薩摩訶薩ᄑ 禪那波羅蜜乙 成就ᄉᆞᄒᆞᄃᆡ 〈금광03: 16-17〉'의 '菩薩摩訶薩ᄑ'이 주격이라는 점에서 ≪金光明經≫의 예인 (1나)의 '菩薩ᄑ'에서 'ᄑ'은 말음첨기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속격에 쓰인 '-ᄑ'이 분명히 발견될 뿐만 아니라, 말음첨기자로 볼 수 있는 'ᄑ'의 많은 경우가 속격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주격 '菩薩摩訶薩ᄑ'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김지오(2010)에서 보듯이 이 자료에 오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구성에 이끌린 오기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尸가 보인다는 점을 들어, '尸'이 속격의 '-ㅅ'을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의 보수성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는 물론 향찰 자료에서도 '尸'은 '-ㅅ'보다 '-ㅭ'을 표기한 용례가 월등히 많을 정도로 그 용법이 이미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속격의 '-ㅅ'을 표기하는 데 '-尸'이 사용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ㅅ'을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 '乙'이 사용되었음에도 '一字一音'을 어기면서까지 '尸'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ㅅ'을 표기한다고 알려진 고대 차자표기 자료의 尸가 실제로는 'ㄹ'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김유범(1996)의 주장이 있을 만큼 고대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ㄹ'을 표기한 尸가 많다는 점에서 '尸'의 보수성에 의한 'ㅅ' 표기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유범(1996)은 석독구결의 '尸'이 속격의 '-ㅅ'을 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차자 尸의 한자음 변화에서 찾고 있다. 곧 尸의 음가가 상고음 [l]로부터 중고음 [ʃ]로 변화했으리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ㄹ'을 표기한 것은 상고음이, 'ㅅ'을 표기한 것은 중고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는 실증하기 어려운 가설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만일 尸의 한자음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면 尸가 속격 '-ㅅ'을 표기한 현상도 어느 정도는 광범위하게 나타나야 할 터인데 차자표기 자료 가운데 석독구결 자료에서만, 그것도 '菩薩, 如來' 등과 같은 매우 제한된 명사 뒤에서만 이러한 용례가 발견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를 따를 경우 '尸'이 '-ㅭ'과 '-ㅅ'을 모두 표기하는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尸'의 음가가 이미 [ʃ]로 변화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음을 반영한 '尸'(ㄹ)에 대해서는 문자의 보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음을 반영한 '尸'(ㅅ)에서는 이러한 문자의 보수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임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견해는 모두 (1), (2)의 '尸'이 고대국어의 속격조사가 '-ㅅ'을 표기한 것이라고 파악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속격의 '-尸'은 주로 동명사 어미 '-ㅭ'을 표기하는 데 쓰인 '-尸'이 고대국어 속격조사 '-ㅅ'을 표기하는 데도 사용된 것, 곧 '尸'이 '이중음가'로 사용된 현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여기의 '尸'이 이중음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동명사 어미 '-ㅭ'과 같은 음가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남풍현(1996ㄱ, ㄴ)이다. 곧 고대국어에는 속격의 '-ㅭ'이 존재했으며 이를 표기한 것이 속격의 '-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 석독구결의 속격 '-尸'이 동명사 어미와 동일한 음가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탁견으로 보인다. 차자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一字一音'의 원리가 지켜진다는 점, 그리고 '佛子ㅋ 何ㄱ 等ㅣㄴ ㄱㄹ 菩薩摩訶薩尸 聞藏ㅅㄴㅎㅁㅁ 爲ㄴㅏㅎ尸ㅅㄱ 〈화소01: 03〉'에서와 같이 같은 문헌의 매우 인접한 문맥에서 하나의 구결자 '尸'로 동명사 어미 '-ㅭ'과 속격조사 '-ㅅ' 두 가지 음을 표기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속격의 '-尸' 역시 동명사 어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가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고대국어에 속격의 '-ㅭ'이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격의 '-尸'은 고대국어를 반영하는 차자표기 자료 가운데 석독구결 자료에서 그것도 몇몇 명사에 국한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5] 이때의 '尸'을 이중음가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

5) 석독구결 자료를 제외하고 속격의 '-尸'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고대국어 예로는 '舊理東尸汀叱 〈혜성가 1구〉'의 '東尸'을 들 수 있다. 이를 小倉進平, 양주동, 홍기문, 이탁 등은 속격의 '-ㅅ'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특히 小倉進平은 이 예가 향가에서 '尸'가 'ㅅ'으로 사용된 유일한 경우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단순히 문맥에 의거한 것임에 비해, 이러한 해독과는 무관하게 남풍현 선생님은 이 예를 석독구결의 속격 '-尸'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사석에서 피력하신 바 있다. 여기의 '東'과

하는 앞의 견해보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고대국어에 속격조사 '-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는 그 전이나 후 어느 시기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고립된 형태소로서 고대국어의 매우 한정된 특정 자료의 몇몇 명사 뒤에서만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고대국어 시기에만 독특하게 존재했던 사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편협한 분포를 지닌 고대국어 문법 요소는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다른 설명에 비해 오히려 더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속격의 '-ᄇᆞ'을 설명하기 위한 그동안의 어떠한 시도들도 약간씩의 미흡한 부분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인데, 그 가능성을 앞서 기존 견해들을 살피는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 곧 동명사 어미와 속격조사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표기에 'ᄇᆞ'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속격조사 가운데 하나가 '-ㄷ'으로 표기되던 '-ㅅ'이었는데 이 형태소가 선행 명사와 통합한 속격형과, 동명사 어미 '-ㅱ'이 통합한 동명사형의 각 말음이 서로 유사했기 때문에 속격에 'ᄇᆞ'이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격의 'ᄇᆞ'이 나타난 것은 음상의 유사성에 이끌린 표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를 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ㅱ'의 음가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6]

'汀'은 모두 명사적인 요소로 해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필자 역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향가의 이 단일예가 고대국어의 속격 '-ㅱ'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때의 'ᄇᆞ' 역시 4장에서 다룬 속격 '-ㅅ'의 불파음화한 결과를 반영해 적은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속격 '-ㅅ'의 불파음화에 의한 속격 'ᄇᆞ, -ᄇᆞ'의 사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6) 본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과 과정이 매우 유사한 황선엽(2000)이 있

3.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의 유사성

중세국어의 속격조사에 '-ㅅ'과 '-ᄋᆡ/의'가 존재했으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자는 유정물 존칭 및 무정물 평칭의 속격에 후자는 유정물 평칭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안병희(1968/1992) 이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7] 이 가운데 석독구결의 'ㆆ'과 관련된 것은 '-ㅅ'인데, 이는 이현규(1982), 이선영(2005) 등에서 보듯이 사이시옷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8] 합성어의 사잇소리가 나타나는 환경은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수식해 주는 구성(이현규 1982/1995: 258)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합성어 구성은 기본적으로 속격 구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을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는 본고에서 시도한 방식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 선구적인 연구인 셈인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이 본고와 흡사함에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핵심적인 주장이나 구체적인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본고의 논의는 유효하다.

7) 중세국어의 속격 '-ㅅ'과 '-ᄋᆡ/의'의 예외적 쓰임에 대해서는 박용찬(2010)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이렇듯 중세국어 속격조사의 높임법 기능이 분명히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우리의 관심은 석독구결의 속격 '-ㆆ'과 관계있는 '-ㅅ'의 음가와 속격 구성에 있으므로 높임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이들 연구에서 '사이시옷'은 합성어 형성에 나타나는 사잇소리뿐만 아니라 속격조사로 다루어진 '-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이선영(2005)에서는 합성어 등에서 선행 어기의 종성을 입성으로 만들어 형태소 경계 표시를 하는 사잇소리와 통사적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을 구분하고 있어 독특하다. 이는 결국 기존에 속격조사를 부정하고 사이시옷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적 기능을 하는 요소임에도 사잇소리가 나타날 환경이 아닌데 나타난 '그 짓 ᄯᅳ리, 한아비 짒 일' 등은 사잇소리로 보는 등 그 구분이 임의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사잇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 사이시옷이라고 보는 일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구분이 유용한 것인지 회의적이고, 분명한 속격구성이 고대국어 자료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속격조사를 부정하는 것이 국어사 연구에 유용한지도 의문이다.

으며, ≪훈민정음언해≫의 '君군ㄷ 字쭝, 快쾡ㄱ 字쭝, 覃땀ㅂ 字쭝' 등과 같이 사잇소리가 나타나는 구성은 통사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사잇소리는 속격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잇소리에 대한 연구 역시 속격의 '-ㅅ'을 다룬 연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속격 '-ㅅ'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인 '-ㅅ'의 음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 첫째는 다른 음절말 ㅅ과 마찬가지로 15세기의 속격조사 '-ㅅ'이 원래의 음가인 [s]을 지니면서 그 음성적 변이형으로 [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박창원 1996)이고, 둘째는 이미 여말선초에 음절말 마찰음의 불파음화가 완성되어 15세기의 '-ㅅ'은 [t̚]으로서 음절말의 '-ㄷ'과 구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김무림 1997)이다.

(3) 가. 밧돕(발+ㅅ+돕) <법화 4: 143ㄱ>, (그) 짓 ᄯᅳ리(집+ㅅ+ᄉᆞᆯ+이) <석상 6: 14ㄱ>
가′ 밠둥(발+ㅅ+둥) <석상3: 38ㄱ>, (가난ᄒᆞᆫ) 짒 ᄯᅳ리(집+ㅅ+ᄉᆞᆯ+이) <두초 8: 68ㄱ>
나. 눉 ᄌᆞᅀᅳ <두초 16: 40ㄴ>, 눋 ᄌᆞᅀᅳ <석상 23: 26ㄴ>

(4) 가. 뫼ㄱ ᄠᅳ디 , 몃 間ㄷ 지븨, 사ᄅᆞᆷㅂ ᄠᅳ디리잇가, 하ᄂᆞᆳ ᄠᅳ디시니, 즘겟 가재, 世子ㅿ 位 <용가>
나. ᄌᆞ갯긔 <용가 25장> , 아자바님내ᄭᅴ <석상 6: 1ㄴ>

(3가, 나)는 박창원(1996)에서 속격조사 '-ㅅ'이 외파음 [s]으로 조음되었음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예 또는 그와 같은 성격의 예이다. (3가)는 (3가)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인데, 특히 '밧돕'과 같은 경우는 ㅺ에서 ㄹ이 탈락한 경우를 들어 음절말 'ㅍ'에서는 앞의 'ㄹ'이 탈락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ㅺ'의 'ㅅ'은 결코 불파음화한 ㅎ[ʔ]이 아니라 [s]로 조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박창원(1996)에서는 속격의 '-ㅅ'이 [s]뿐만 아니라 입성을 표시하는 ㅎ[ʔ]으로 조음되기도 했다고 보았는데

그 예로 든 것이 (3나)[9]와 (4가)이다. 한편 (4)는 김무림(1997)에서 15세기의 음절말 ㅅ이 이미 불파음화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든 것이다. (4가)에서 사잇소리 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사잇소리 표기로 파열음이 쓰인 것은 ㅅ의 불파음화를 전제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4나)에서 ㅅ이 음절말에 온 'ㅅ긔'나 다음 음절 초성에서 자음 앞에 온 '씌'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때의 ㅅ이 불파음화했음을 잘 알려주는 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의 8종성법 표기에서 음절말의 ㅅ과 ㄷ이 엄격히 구별되어 표기된 사실이나 음절말의 ㄷ과는 달리 음절말의 ㅅ은 비음 앞에서 'ㅅ→ㄴ'의 동화형이 15세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15세기의 음절말 ㅅ이 완전히 불파음화했다는 주장에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속격의 '-ㅅ'이 완전히 불파음화하지 않은 상태로서 [s]와 ㆆ[ʔ]의 두 가지 음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서 15세기의 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의 음가가 입성 ㆆ(ʔ)인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ㆆ(ʔ)의 음가를 지닌 속격의 '-ㅅ'이 통합하면 속격어를 포함한 전체 구성의 조음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속격어와 그 수식을 받는 명사구 사이에 입성 ㆆ(ʔ)이 옴으로써 속격어와 피수식 명사구 사이

9) 이 예와 관련하여 이승재(1987)에서는 '눉믈, 눉 우희, 님긊 말, 바롤 믈 〈용가〉' 등을 들어 속격에 나타나는 'ㅿ, ㆆ' 등을 'ㅅ'의 이형태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듯이 ≪龍飛御天歌≫는 규범적 표기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규범적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龍飛御天歌≫에서 (3가)와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던 속격 표기가 이후 '齒칭頭뜝ㅅ 소리, 正졍齒칭ㅅ 소리 〈훈언〉, 異잉ㅈ 字쫑, 佛뿛ㅅ 字쫑, 飮흠ㅅ 字쫑 〈원각〉'와 같이 표기의 혼란을 보이는 사실(이선영 2005) 역시 이 자료의 속격 표기가 규범을 지향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에 휴지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선·후행성분이 보다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음절말에서 ㆆ(?)으로 조음되는 ㅅ을 지닌 (5)의 예를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5) 가. 薔쟝미 쟝 薇쟝밋 미, 麒 긔린 긔 麟 긔린 린 <훈몽>
나. 香ㄱ 퓌우고 供養ᄒᆞ야 <월석 21: 149ㄴ>
다. 값도숩고 <석상 6: 21ㄱ>, 빙뿌디 <번소 3: 19ㄱ>,
라. 듣긇 ᄠᅴ <월석 서: 8ㄴ>, 삻지거니와 <능엄 2: 9ㄴ>

(5가)는 이선영(2005: 549)에서 사잇소리가 사라져 가는 예로 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 속격의 '-ㅅ'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ㅅ'이 사용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훈과 음 사이에 휴지가 놓이게 되므로 두 영역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5나)는 속격 '-ㅅ'이 나타날 환경이 아님에도, (4가)에 적용된 한글 초기 문헌의 속격 표기 원칙에 따라 사잇소리 ㄱ을 더해 놓은 경우이다. 이선영(2005: 547)에서는 이때의 ㄱ이 약한 휴지를 만들어 형태소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바 있는데, ㄱ으로 인하여 선행하는 '香'과 후행하는 '퓌우고'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5다) 역시 속격의 '-ㅅ'이나 사잇소리가 나타날 환경이 아님에도 이들과 음상이 같은 ㅅ이 합성어의 선행 요소 뒤에 나타난 것이다. 이선영(2010)에서는 이때의 ㅅ 역시 선행 어기를 입성으로 만들어 주는 사잇소리라고 본 바 있는데, ㅅ이 통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구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효과는 앞의 (4가)의 '兄ㄱ ᄠᅳ디 , 뗏 間ㄷ 지븨, 사ᄅᆞᆷㅂ ᄠᅳ디리잇가, 하ᄂᆞᆳ ᄠᅳ디시니, 즘겟 가재, 世子ㅿ 位'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라)는 이익섭(1992)에서 ㆆ을 잘못 쓴 예로 든 것이지만, 여기의 사잇소리 ㆆ은 (5다)의 ㅅ과 성격이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후행

요소를 명확히 드러내어 이 구성이 이 두 요소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복합 구성에서 속격의 '-ㅅ'이 놓여 자연스레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보다 분명히 구별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0] 만일 '-ㅅ'이 개재되지 않았다면 앞 (3)의 '발+등, 발+돕'의 후행 요소 '등, 돕'의 어두 자음이 유성음화하게 되어 이것이 선·후행 요소의 수식 구성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며, '(가난ᄒᆞᆫ) 집 ᄯᅳᆯ'의 구성은 '(가난ᄒᆞᆫ) [집ᄯᅳᆯ]'의 구성으로 오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속격의 '-ㅅ'이 개재되어 '밠등'은 '발'과 '등'이 수식 관계로 통합한 구성이며,[11] '(가난ᄒᆞᆫ) 집 ᄯᅳᆯ'은 명사구 '(가난ᄒᆞᆫ) 집'이 'ᄯᅳᆯ'을 수식하는 '[(가난ᄒᆞᆫ) 집] ᄯᅳᆯ'의 구성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속격 '-ㅅ'은 바로 이렇게 선·후행 명사구 각각을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그 전체 구성이 선·후행 두 요소의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속격 '-ㅅ'은 앞 (4가)의 '하ᄂᆞᆷ ᄠᅳ디시니'에서와 같이 'ㆆ'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ㅅ'이 [ʔ]으로 조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ㆆ이 고유어의 표기에 사용된 경우는 이러한 속격을 제외하면 동명사 어미 '-ᄆᆞᆷ'에서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둘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다 하겠다.

---

10) 이러한 방식의 인식은 이미 이현규(1982/1995: 252), 이선영(2005)에서 제시된 바 있다.

11) '밧등, 믓결, 그 짓 ᄯᅳᆯ' 등은 속격 '-ㅅ'의 통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선행 요소 '발, 믈, 집' 등이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음운 현상(공시적 현상이든 통시적 현상이든)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속격조사는 여전히 남아서 선·후행 요소가 수식 관계로 통합된 구성임은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한글 창제 초기 문헌에서는 동명사 어미 '-ㄹ'이 '-ㅭ'로도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글 초기 문헌인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訓民正音諺解≫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명사 어미가 '-ㅭ'으로 표기되고(이익섭 1992: 83), 후행 폐쇄음이 평음으로 표기되는 '-ㅭ+평음'의 표기가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동명사 어미가 '-ㄹ'로 표기되고 후행 폐쇄음이 각자병서로 표기되는 '-ㄹ+각자병서' 표기가 점차 더 많아졌음은 물론 동명사 어미를 '-ㄹ'로, 후행 폐쇄음을 평음으로 적은 '-ㄹ+평음' 표기도 미미하기는 하나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하여 이들 세 표기가 공존하다가, ≪圓覺經諺解≫(1465, 세조 11) 이후에는 각자병서 폐지와 함께 '-ㄹ+평음' 표기로 변화하였다.[12] 다음이 바로 그 예이다.[13]

(6) 가.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훈언 2ㄱ>
나. 避仇홇 소니 마리 兩漢 故事애 엇더ᄒᆞ니잇고 <용가 28장>
다. 오싫 길헤 머므르싫 지비라 <석상 6: 23ㄴ>
라. 苦 그츙 法을 求티 아니코 <법화 1: 231ㄱ>
(7) 가. 부텨 아니 오실 낄ᄒᆞ로 가더니 <월석 7: 10ㄱ>
나. 펴엣던 불휠 구필 ᄊᆞ싀예 <석상 6: 2ㄱ>
다. 四面에 브리 니러셜씨 갈 ᄠᅥ 업서 <석상 6: 33ㄱ>
라. 제 欲 조차 즐길 꺼슬 다 주ᄃᆡ <법화 6: 6ㄴ>
(8) 가. 그 欲을 조차 즐길 거슬 다 주ᄃᆡ <월석 17: 46ㄴ>
나. ᄆᆞᅀᆞ매 그츨 ᄉᆞᆺ 업시 홇디니 <능엄 7: 23ㄱ>
다. 몯내 혜ᅀᆞᄫᆞᆯ 功과 德괘 <석서 1ㄴ>
라. 墓所ᄂᆞᆫ 묻ᄌᆞᄫᆞᆯ 싸히라 <월석 10: 13ㄱ>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익섭(1992)를 참조할 수 있다. '-ㅭ+평음', '-ㄹ+각자병서', '-ㄹ+평음' 등의 용어는 신승용(2010)의 것을 가져온 것이다.
13) 동명사 어미 '-ㅭ'의 자세한 용례는 김문웅(1981), 이익섭(1992: 61~100)을 참고할 수 있다.

(6)은 '-ㅱ+평음', (7)은 '-ㄹ+각자병서', (8)은 '-ㄹ+평음' 표기의 예이다. 이익섭(1992)에서는 이러한 각 표기에 대하여, 한글 초기 문헌에서는 (6), 그 이후부터 ≪圓覺經諺解≫ 전까지는 (7), 그 이후에는 (8)의 표기가 일반적이므로 표기 방식이 (6)→(7)→(8)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14] 그러나 이들이 같은 시기에 등장하는 표기라는 점에서 (6)~(8)의 다양한 표기는 표기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동명사어미 '-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나온 다양한 시도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한글 창제 초기에 형태론적 고려에 의하여 동명사 어미의 기저형을 밝혀 적고(후술 참조) 후행하는 명사도 원형을 유지하여 표기하고자 한 시도가 (6)의 표기인데, 이에 대한 반발로 실제 발음을 중시하여 적고자 한 표기가 (7)이다. 그리고 (7)과 같은 표기에, '터럭도, 뜯도, 집도; 곰즉도, 곧디, 놋갑도' 등과 같이 굴절형에서 경음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던 한글 창제 초기부터의 일반적 표기 방식을 더한 것이 (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 방안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던 끝에 각자병서 폐지와 맞물려 자연스레 (8)과 같은 표기가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6)과 (7)의 표기가 동일한 음운론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15] 달리 말하여 (6)의 동명사 어미 '-ㅱ'의 'ㅎ'은 후행 폐쇄음을 경음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16] 후행 폐쇄

14) 신승용(2007)에서도 이들 표기를 표기 방식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15) 신승용(2007)에서는 (6)과 (7)뿐만 아니라 (8)도 동일한 음운론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은 음운론적 사실과 형태론적 사실을 절충한 표기로서 (6), (7)과 동일한 음운론적 사실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이것을 '-ㅱ'의 'ㅎ'이 경음 부호라는 주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ㅎ'이 경음 부호가 될 수 없음은 다음과 같이 경음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ㅱ'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가. 몯 홇 노미 하니라 〈훈언 2ㄴ〉

음을 경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후음 계열의 소리는 후두 폐쇄음 'ʔ'이므로 동명사 어미는 단순한 'ㄹ'이 아니라 뒤에 'ʔ'을 더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익섭 1992: 75). 바로 이런 동명사 어미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표기가 '-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명사 어미 '-ㅱ'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신승용 2007)이 있었기 때문에 동명사 어미는 다음과 같이 '-ㅸ'으로도 표기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

(9)가. 諸佛 供養이 그츨ᄫᅳᆯ 슷 업스니 <월석 7: 58ㄴ>
나. 그 壇 네 ᄲᅳ레 各各 서되 드ᄅᆞᆯᄫᅳᆯ 華甁을 노코 <월석 10: 119ㄱ>
다. 일로 流布호ᄃᆡ 다ᄋᆞᆯᄫᅳᆯ 업시 호리라 <능엄 1: 4ㄴ>
라. 놀애ᄅᆞᆯ 노외야 슬ᄑᆞᆯᄫᅳᆯ 업시 브르ᄂᆞ니 <두초 25: 53ㄱ>
마. 이러셔ᄃᆡ 아니ᄒᆞᆯᄫᅳᆯ 아니ᄒᆞ고 <내훈 1: 30ㄴ>

김유범(1999)에서는 (9)의 예문들을 들어 '-ㅸ'이 '-ㅱ', '-ㄹ'과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보인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동명사 어미 '-ㅱ'이 '-ㅸ'으로도 적힐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3장에서 속격조사를 포함한 음절말 ㅅ이 [s]로는 물론 [ʔ]으로도 조음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는데, (9)에서 보이는 '-ㅸ'의 'ㅅ'이 바로 [ʔ]으로 조음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ㅱ'나 '-ㅸ'은 모두 같은 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9)에서 동명사 어미 '-ㅱ'이 '-ㅸ'으로 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에서 t-입성음을 표기하기 위한 '以影補來' 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日ᄉᆡᆯ, 月ᄫᅡᆯ, 不붋' 등에서 보이는 'ㅱ'을 들어 동명사 어미 '-ㅱ'과 '-ㅸ'을 동일한 소리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동국정

나. 내 本來 求홇 ᄆᆞᅀᆞᆷ 업다니 〈월석 13: 32ㄴ〉
다. 衆生ᄋᆡ 歸依홇 ᄯᅡ히 ᄃᆞ외야 잇ᄂᆞ니라 〈석상 23: 6ㄴ〉
라. 精舍 지ᅀᅮᆷ 터ᄒᆞᆯ 어드니 〈석상 6: 23ㄴ〉

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以影補來' 표기는 우리의 '俗習'에서 'ㄹ'로 발음되는 한자음을 t-입성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이때의 'ㅱ'은 [tˀ] 음을 표시한다. 이는 ≪訓民正音解例本≫에서는 '별爲鷩'로 표기된 t-입성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따른 ≪訓民正音諺解≫에서는 '鷩별'로 표기되어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tˀ]음을 표시하던 'ㅱ'이, 아무리 표기 대상이 고유어로 달라진다고 하여 기저형이 /lʔ/으로 보이는 동명사 어미의 표기에도 사용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우선 '以影補來'에 의한 'ㅱ'과 동명사 어미 '-ㅱ'은 그 표기의 결과적인 음성형이 유사할지는 몰라도 완전히 같은 성격의 표기가 아니다. '별(鷩)'과 같은 t-입성음 표기는 ≪訓民正音解例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東國正韻≫ 이후에 간행된 ≪洪武正韻譯訓≫에서도 발견된다(예: 긷 吉). 이러한 표기는 t-입성음을 원칙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t-입성음을 원칙대로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以影補來' 즉 'ㅱ'으로 표기한 것은, t-입성음을 'ㄹ'로 발음하는 '俗習'을 살리면서도 원칙적인 음과 가깝게 하려는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17] 이렇게 보면 以影補來에 의한 'ㅱ'은 현실 발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기가 아니며 이때의 'ㆆ'은 입성을 표시하는 부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동명사 어미 '-ㅱ'은 그 형태소의 실제음이라고 인식한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以影補來'에 의한 'ㅱ'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중세국어를 통해서 동명사 어미 '-ㅱ'의 기저형이 /lʔ/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그 말음은, [ʔ]으로 조음되는 속격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9)의 '-ㅭ'은 음절말 'ㆆ'과 'ㅅ'이 동질적인 소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속격 '-ㅅ'과 음상이 동일한 'ㅅ'이 동

17) 이러한 사실은 대학원 수학 시절 고 안병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그러나 잘못된 이해로 인한 오류는 오로지 필자의 것이다.

명사 어미 표기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세국어의 속격조사와 동명사 어미에 대한 동질적인 인식으로 인한 표기 현상은, (1), (2)에서와 같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주로 동명사 어미를 표기했던 '-ㆆ'이 속격조사의 표기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4. 석독구결의 속격 '-ㆆ' 및 관련 문제의 해결

앞 장에서 중세국어에서 속격조사 '-ㅅ'을 포함한 음절말 'ㅅ'의 음성형과 동명사 어미 '-ㅭ'의 말음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으로 '-ㅭ'이 '-ㅿ'으로도 표기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석독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에서 동명사 어미와 속격조사 사이의 어떤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석독구결에서 동명사 어미 '-ㅭ'을 표기하던 '-ㆆ'이 '-ㅭ'과 속격 '-ㅅ'의 표기에도 사용된 현상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석독구결은 물론 향찰 자료에서도 문제의 속격조사는 '-七, -叱'로 표기된다.[18] 이 차자가 표시하는 당시 속격조사의 음가에 대해서 김무림(1997)에서는 '*ᄉ/*스/*시', 황국정(2004)에서는 '*si'로 보았는가 하면 박창원(1996)에서는 차자가 아닌 중세국어 사실을 통해서 '*s'로 재구하고 있다. 그러나 속격조사 '-七, -叱'의 음가가 모음을 지녔을 것으로 보는 것은 차자 당시의 한자음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ᄉ/스/시'와 같거나 유사한 음가를 지닌 '-시-'의 표기에 석독구결자 'ㅁ, ㄷ'가 사용된 경우에서 보듯이 그 음가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유사한 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을 터인데 굳이 '-七, -叱'로 속격조사를 표기한 이유를 분명히 말

18) 이두 자료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속격의 '-叱'이 발견된다(이승재 2000: 118).

해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보다는 속격조사가 '-ㅅ'(s)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자를 이용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세국어의 '-ᇫ'이 '-ᇬ'으로도 표기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절말의 'ㅅ'(s)이 음절말에서 불파음화하면서 그 음이 [ʔ]으로 조음되었고 이로 인해 '-ᇫ'의 말음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ㅅ'의 불파음화가 완결된 시점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불파음화의 시점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던 듯하다. 이렇게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인데, 석독구결이 바로 음절말에서 'ㅅ→ʔ'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속격에 '-ᄫ'이 사용된 현상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석독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에서 음절말 'ㅅ→ʔ'의 불파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속격의 '-ㅅ'이 [ʔ]으로 조음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고[19] 그 결과 속격조사와 동명사 어미 '-ᇫ'의 말음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던 '-ᄫ'이 속격조사의 표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파음화한 'ʔ'을 표기하기에 마땅한 구결자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파음화한 속격조사의 음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명사 어미 '-ᇫ'이 말음으로 'ʔ'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표기하던 '-ᄫ'이 그나마 음절말에서 불파음화한 '-ㅅ'의 표기에 가장 적합한 구결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동명사 어미 '-ᇫ'을 표기하던 '-ᄫ'이 속격조사의 표기에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속격의 '-ᄫ'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몇몇 명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 역시 당시가 음

19) 음절말 'ㅅ→ʔ'의 불파음화의 결과가 속격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불파음화가 속격 '-ㄷ'(s)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천착은 삼가기로 한다.

절말 'ㅅ'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속격의 '-프'과 동명사 어미 표기의 '-프' 사이의 간섭을 막기 위한 고려도 속격 '-프'의 전면적 출현을 막은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속격 '-프'의 사용이 속격조사 '-ㅅ'의 불파음화로 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은 속격의 '-프'이 '菩薩摩訶薩, 菩薩' 등의 속격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0) 가. 善男子 菩薩摩訶薩프 初發心ㄱ 名ㄱ 妙寶起ㅓㄴ프 三摩提ㅣ 攝受ᄉᆞᆫㄱ ㅅᆞᆷ <금광 08: 16-17>
나. 云何ᄒᆞᄉᆞᆫㄱ 乙 菩薩프 分滅施ᄂᆞᄉᆞᆫᄉᆞᆼ로 <화소 09: 09>

(11) 가. 衆生 {於}佛ㅣ 菩薩프十 能ᄒᆞᆫ 恩德乙 知ᄒᆞᆫ立 <화엄 06: 10>
나. 是ㅣ 如ᄒᆞᆫᄉᆞᆫㄱ 一切프十 皆ᄒᆞ 自在ᄒᆞᄉᆞᆫᄐᆞᄀᆞㄱ ㅅᆞᆫㄱ <화엄 15: 07>
다. 智首菩薩ㄱ 文殊師利菩薩프十 問ᄒᆞ 言ᄒᆞᄆᆞ프 佛子ᄒᆞ … <화엄 01: 04>

(10)의 '-프'은 앞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음첨기자가 아닌 속격의 표기이다. 그런데 이들 단어의 경우, 그 속격형 '菩薩+ㅅ, 菩薩摩訶薩+ㅅ'의 속격조사가 'ㅅ→프'으로 불파음화했을 경우에는 이 속격어의 말음이 동명사 어미 '-ㅁ'과 일치한다. 따라서 다른 단어의 속격형에 비해 동명사 어미와의 유사성이 보다 분명히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에서는 속격조사로 '-프'이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독 이들 단어의 속격형에 속격 '-프'이 자주 사용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11)의 '-프十'이다. 남풍현(1996ㄷ/1999)에서는 이들이 말음을 첨기한 '菩薩프' 등에 처격조사 '十'가 통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중세국어의

여격조사 '-긔'에 대응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나, '-ㅣ+'가 사용된 용례 가운데 (11다)를 제외하면 모두 여격어가 아닌 처격어로 해석되는 문맥이다.[20] 또한 (11다) 역시 넓은 의미의 처격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11)의 '-ㅣ'은 말음첨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속격조사 '-ㅅ'이 'ㅅ→ʔ'으로 불파음화한 결과음을 적으려는 시도에서 속격의 '-ㅣ'이 쓰였다고 봄으로써 기존에 해석하기 어려웠던 예들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13) 가. 諸 佛 如來ㅣ 說白ノ기 甚深 法乙 心ㅋ十 常ㅁ 樂ノ 聞白ノㅣム <금광 03: 25-04: 01>
나. 或ㄴ기 梵志ㅣ 諸ㄱ 威儀乙 現ㅎㅋ亦 <화엄 19: 21>
다. 衆生 一切 智ㅋ十 入ㄴㅋ亦 三世ㅣ 等ㅋノ기入乙 知ㅌ立 <화엄 07: 23>
라. 善ㅈ 於他乙 破ㄴㅋ 四諦 說 外ㅣ 動ㄴㅋㅎㅣ 所ㅋ 非矣ㅠ <화엄 20: 11>

(13)은 (11), (12)의 예와는 달리 속격 '-ㅣ'이 통합한 선행 명사가 'ㄹ'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이때의 '-ㅣ'을 '菩薩, 菩薩摩訶薩'에 통합한 '-ㅣ'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예이다. 특히 (13나)는 남풍현(1996ㄷ/1999: 313)에서 '梵志'가 존자가 아니므로 속격으로는 'ㅋ(이/의)'가 와야 하므로 이 '-ㅣ'의 음가가 '-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속격의 '-ㅱ'을 상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예이다. 그러나 속격 '-ㅅ'의 예외적 쓰임은 중세국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 만큼(박용찬 2010), 이런 예외적 쓰임이 고대국어에서도 발견된다

20) 이승재(2000: 120)에서는 이때의 (11)의 '-ㅣ+'의 '-ㅣ'을 말음첨기자로 볼 수도 '-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자는 '如來ㅣ' 등의 '-ㅣ'은 말음첨기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후자는 '一字一音'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고 볼 수 있어 이때의 '-ᄫ'을 '-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는 앞의 (11), (12)와 마찬가지로 '如來, 梵志, 三世, 外' 각각에 속격의 '-ㅅ'이 통합한 속격형 '如來ㅅ, 梵志ㅅ, 三世ㅅ, 外ㅅ'의 '-ㅅ'이 불파음화한 결과를 반영하여 표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11), (12)에 비해 동명사 어미 '-ㅭ'과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았음에도 '-ᄫ'로 속격조사를 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14) 가. 此ㅣ 菩薩ㄱ 十ᄫ 種ㄹ 無盡藏ㄹ 成就ᄒᆞᄂᆞㄱ ᄉᆞᄆᆞ
<화소 25: 11-12>
나. 過去ㄹ 一ㄱ 生ᄉᆞ 二ᄫ 生ᄉᆞ 乃ᄋᆞᆞ 至ㅣ 十ᄫ 生ᄉᆞ 百ㄱ 生ᄉᆞ
<화소 20: 07-09>
다. 百ㄱ 萬ᄫ 阿僧祇ㄹ 陀羅尼ㄹ 以ᄒᆞ ᄒᆞᄉᆞ <화소 25: 12-14>

(14)의 예들은 말음첨기자로 볼 수도 있고 속격조사 '-ㅅ'의 불파음화로 인하여 나타난 속격의 '-ᄫ'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의 '十ᄫ, 二ᄫ, 萬ᄫ' 등은 수사 '엳, *두ᄫᆞᆯᄒᆞ, 萬'의 단독형인 '열, *두ᄫᆞᆯ, 萬'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속격형 '엳, *두ᄫᆞᆳ, 萬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4나)의 '一ㄱ, 百ㄱ' 등을 볼 때, 이들은 후행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수사의 단독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가. 佛子ᄒᆞ 此ㅣ 菩薩ㄱ 上ᄫ 說ᄒᆞㄱ 所ᄒᆞ 如ᄒᆞᄋᆞᄒᆞ
<화소 11: 16-18>
나. 出世心ㄹ 得ᄉᆞ 昔ᄫ 得ᄫ 未ㅣᄂᆞᄒᆞᄒᆞᄂᆞㅣᄂᆞㄱ 所ㅣㄱㄹ
<금광 06: 23-24>

(15)에서 보이는 '上ᄫ, 昔ᄫ'의 '-ᄫ'은 지금까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난해자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속격조사 '-ㅅ'의 불파음화로

인하여 속격 '-ㅅ'이 '-ㄱ'로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들 예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문맥 속에서 부사어로 기능함에도 속격의 '-ㄱ'이 통합해 나타나고 있어 해석이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석독구결에 '與七, 共七, 正七, 方ㅅ, 勤七' 등과 같은 이른바 '七'형 부사(정재영 1995)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 '七'형 부사로 '上七, '昔七'이 있었는데, 이들 부사의 말음 'ㅅ'이 불파음화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표기가 (14)의 '上ㄱ, 昔ㄱ'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ㄱ'은 속격조사 '-ㅅ'과는 무관한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석독구결에서 속격 위치에 나타난 '-ㄱ'이 표기하는 속격조사가 '-ㅅ'인지 '-ㅁ'인지, 또 나아가 주로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는 구결자 '-ㄱ'이 속격조사의 표기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속격 위치에 나타난 '-ㄱ'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개 속격조사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ㄱ'이 표기하는 형태소의 음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ㅅ'으로, 또 하나는 '-ㅁ'으로 음가를 추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一字一音'의 원리를 어긴다는 점과 '-ㄱ'이 'ㅅ'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고, 후자는 또 하나의 속격조사 '-ㅁ'을 설정했을 때에는 그 분포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사적인 연속성도 찾을 수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런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속격 '-ㄱ'의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ㅁ'이 유사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는 '-ㄲ'이 속격조사 표기에도 쓰였을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의 검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속격 '-ㅅ' 가운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 음절말에서 'ㅅ→ʔ'의 불파음화를 경험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음이 선·후행 요소 사이에 놓이면서 휴지가 나타나 자연스레 선·후행 요소가 분명히 구별되면서 전체가 수식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중세국어의 동명사 어미 '-ㅭ'은 그 기저형에 말음으로 'ʔ'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결과 동명사 어미가 '-ㅭ'으로 표기되었다. 이때의 말음 'ㆆ'은 음절말에서 불파음화한 'ㅅ'의 조음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 둘의 유사성이 드러나고 그 결과 동명사 어미가 '-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중세국어에서 '-ㅅ'과 '-ㅭ'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ㅭ'이 '-ㅱ'으로도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석독구결의 속격 '-ㄲ'도 당시 속격조사와 동명사 어미의 유사성에 이끌려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석독구결 자료가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속격 '-ㅅ'이 'ㅅ→ʔ'의 불파음화를 겪었을 때 동명사 어미 '-ㅭ'('ʔ')의 말음과 같게 되므로 둘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동명사 어미 표기인 '-ㄲ'이 불파음화한 속격조사 표기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석독구결이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 초기를 반영한다고 봄으로써, 속격 '-ㄲ'이 '菩薩' 등의 특정한 단어 뒤에 주로 나타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如來ㄲ, 梵志ㄲ, 三世ㄲ' 등이 분명한 속격형임을 알 수 있으며, '上ㄲ, 昔ㄲ'과 같은 난해자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석독구결의 속격 '-ㄲ'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세국어 사실에 대한 이해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

를 할 수 있었다. 석독구결을 포함한 중세 이전 국어의 연구에서 그 시기의 독자적인 사실을 중시하면서도, 끊임없이 중세국어 사실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한편 이 연구는 입증되지 않은 전제에 입각한 채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석독구결이 반영하는 국어 시기가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전제 위에서 속격 '-ㄲ'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과연 석독구결이 반영하는 국어에서부터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는 충분히 논증되지 못했음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제가 분명히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김무림(1997), 경음의 음운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29-48.

김문웅(1981), 「ㅎ」의 범주와 그 기능,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3-26.

김완진(1980),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유범(1996), 'ㄲ'의 이중적 음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207-219.

김유범(1999), 관형사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학』 10, 한국어학회, 1-21.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자토구결의 오기,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145-175.

남풍현(1996ㄱ), 『金光明經』 제3의 석독구결에 나타난 ㄲ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남풍현(1999:

321-342)에 재수록]
남풍현(1996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ㅁ/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1-44. [남풍현(1999: 285-319)에 재수록]
남풍현(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박용찬(2010), 중세국어 속격조사의 예외적 쓰임,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113-135.
박창원(1984), 중세 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 『국어학』 13, 국어학회, 171-197.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신승용(2007), '-ㅱ 평음'과 '-ㄹ+각자병서', '-ㄹ+평음' 재론, 『동아인문학』 12, 동아인문학회, 411-438.
안병희(1968),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ㅅ'에 대하여, 『이숭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335-345. [안병희(1992: 41-56)에 재수록]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양주동(1965/1973), 『고가연구(증보판)』, 일조각.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이선영(2005), 사이시옷과 사잇소리에 대한 관견,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539-555.
이승재(1987), 속격 형태 'ㅅ'의 형성 과정, 『성심어문논집』 10, 성심어문학회, 79-93.
이승재(1995),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15-252.
이승재(2000),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107-132.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장희(1995ㄱ), 화엄경 구결자 'ㅁ'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119-140.
이장희(1995ㄴ),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ㄷ'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 문학과언어연구회, 103-120.
이현규(1982), '사이시옷'의 형태와 기능, 『한글』 176, 한글학회, 179-209. [이현규(1995), '사이시옷'의 기능변화,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영남대학교출판부, 243-271면 재수록]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91-144.
장윤희(2010), 중세국어 연결어미 형성의 문법사: -오ᄃᆡ, -은ᄃᆡ, -은ᄃᆡ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1-90.
정재영(1995),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85-316.
황국정(2004), 차자 '叱'의 음가에 대한 재검토,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319-349.
황선엽(2000), 석독구결의 'ㅣ'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어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55-280.
황선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E-mail: jyh@inha.ac.kr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For Solution to settle Some Problems concerned with Possessive Postposition '-s'(ㅅ) in Old Korean *Seoktokgugyeol*

Jang, Yoon-hee

There has been no enough explanation of why '-ㅅ(ㅭ)', a verbal noun ending in Old Korean *Seoktokgugyeol*, used in place of the possessive postposition, and how it was pronounced. It can be assumed that '-ㅅ(ㅭ)' appeared as the possessive postposition because of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morph of the possessive postposition and the morph of verbal noun ending. Actually, we can find some similarities between '-s(-ㅅ)', the possessive postposition, and '-l?(-ㅭ)', verbal noun ending in Middle Korean. Auslaut 's' which had gone through 's→?' implosion and the last sound of '-ㅭ' are the same. That was why another form of '-ㄾ' could be used as verbal noun ending in Middle Korean.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quite a possibility that the implosion of the auslaut 's' had started in *Seoktokgugyeol* materials. So '-ㅅ' which generally used as verbal noun ending could be used as the transcription for '?', implosive sound of the possessive postposition '-s'. With this point of view, a lot of problems concerned with possessive postposition '-ㅅ' can be explained.

Key-words: *Seoktokgugyeol*(釋讀口訣), Middle Korean, possessive, possessive postposition, verbal noun ending, implosive